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7월 9일(주일) 제1450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대성회

2023.7.14(금) 오후 2시-9시
송도 컨벤시아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주승중 목사
주안장로교회



이인호 목사
더사랑의교회



유기성 목사
WJM 이사장

교회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자
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

신청 QR 코드 카운트다운 신청



Lausanne

‘714 기도대성회’ 7월 14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카운트다운’ 7월 15~16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714 기도대성회’와 ‘2023 대학청년부 예배&선교 콘퍼런스 카운트다운(이하 2023 카운트다운)’이 드디어 막 오른다. 714 기도대성회와 2023 카운트다운은 한국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한국 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도모하는 축복의 장(場)이다.

‘714 기도대성회’는 7월 14일(금)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714 기도대성회는 세 파트로 진행된다. ‘파트1’에서는 주안장로교회팀 찬양, 이재훈 목사 개회사,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메시지, ‘파트2’에서는 더사랑의교회팀 찬양,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메시지, 제4차 로잔대회와 중보기도 참여방안 안내 서약식, ‘파트3’에서는 온누리교회팀 찬양, 유기성 목사(WJM이사장) 메시지, 기도선포 등을 한다.

714 기도대성회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포스터 큐알코드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 제4차 로잔대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3 카운트다운’은 7월 15일(토)과 16일(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The Whole Church, Whole Gospel, Whole World’를 주제로 진행된다. 로잔운동의 핵심가치이자 모토인 ‘온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을 온 세계에(The Whole World)!’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한다.

7월 15일(토)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The Whole Church’,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The Whole Gospel’, 한철호 선교사(미션과 트너스 대표) ‘The Whole World’, 16일(주일) 이재훈 목사 ‘Come to worship’, 유기성 목사(WJM이사장) ‘Go to the nations’를 주제로 강의한다. 스톤게이트(심형진 목사), 홀리웨이브(지구촌교회 젊은이예배), 온누리교회 홀리임팩트팀이 찬양을 인도한다. 선예, 카우치워십, 홍이삭, 범키, 하다쉬뮤직, 크룩스, 박민혜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2023 카운트다운에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전자주보나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포스터 큐알코드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이다. 회비는 신청 주차 수요일 자정까지 입금해야 한다. 입금할 때 이름과 연락처 끝 네 자리를 함께 적어야 한다(ex. 홍길동8572). 8~9일 신청자는 12일까지 입금 완료해야 접수된다. 13일부터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타 교회 성도들도 참가할 수 있다. 등록 및 회비 납부를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집회 현장에서 ‘2023년 아웃리치 굿즈’를 나눠준다.

제4차 로잔대회는 2024년 9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로잔운동은 1974년 시작된 복음주의 선교운동이다.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연합해서 온 세상에 전하자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예수 사랑 들고 땅끝까지!

여름 아웃리치 해외 153개 팀, 국내 대학청년 70개 팀, 차세대 11개 팀

2023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막 올랐다. 성인공동체, 사역팀, 대학청년부, 차세대 아웃리치팀이 예수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떠난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서는 선교지, 지역교회, 이주민,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선교사 등을 섬긴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153개 팀 1,700여명, 국내 대학청년부 70개 팀 2,443명, 차세대 11개 팀 255명이 참가한다(7월 6일 기준). 성인공동체와 사역팀 국내 아웃리치 현황은 취합 중이다. 국내 아웃리치팀은 소속 공동체에, 해외 아웃리치팀은 2000선교 본부에 아웃리치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올해 해외 아웃리치는 카자흐스탄, 세네갈,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32개국에서 진행된다. 선교사 위로, 어린이사역, 시설보수, 전도사역 등을 한다.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지역교

회, 기관 등을 방문해서 전도, 여름캠프, 어르신 섬김, 마을 잔치 등을 한다.

미디어본부에서는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에는 비공개 지역이나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제작한 영상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3)하거나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시상도 한다. 1등 30만 원(1팀), 2등 20만 원(3팀), 3등 10만 원(5팀) 상당 외식 상품권(배달앱)을 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onnuriacts29)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생생한 아웃리치 사진과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담긴 간증을 모집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A4용지 1장, 글자크기 10포인트)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진이 좋고,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낫다.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을 보낸 성도들을 추천해서 소정의 상품을 준다.

문의: 각 공동체(국내), 02-3215-3211(해외)

/ 홍하영 기자

특별 인터뷰_ 이재훈 목사(한국로잔위원회 위원장, 공동대회장)와 함께 3면

Life_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6면

*7~8월 온누리신문은 격주로 8면 제작합니다.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말씀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요단 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로 모세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가서 요단 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신 31:6, 8).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천사를 통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앞서 가며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켜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축복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120세 모세에게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것이다. 그러나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14절). 여러분,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나중에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실수가 없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귀한지 모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는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참 안타깝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6~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과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진노의 표현 가운데 가장 고 통스러운 내용이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외면하고 얼굴을 숨기

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과 부패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을 때 하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거절하고, 재앙과 저주를 자초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외면했다”고 말하는 교만과 오만, 파렴치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더는 소망이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숨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경고 메시지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키면 희망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일생 동안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일생 가운데 세 번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충고와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과 핍박과 환란과 광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게 심판이라면 얼굴을 비취주시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네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민 6:24~2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숨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도록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면 돌아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않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축복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신 32:10~11).

모세가 삶을 마무리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모습이 독수리가 자기 동지를 어지럽히고,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위기의 순간에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엮는 것 같다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항구를 떠나지 않고 정박해 있는 배는 더는 배가 아닐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가게 될 때 역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멈춰 있으면 안전하지만, 공항에 두기 위해 만든 비행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기의 저항이 있고, 기상이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박차고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자기 동지를 어지럽히는 것은 새끼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구만리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하려고 동지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새끼가 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섭지만 동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홀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 자기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엮어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비바람 치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마치 사방이 막혀있고 더는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냥 풍랑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한복판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손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경고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특별 인터뷰

1. '714 기도대성회' 함께 갑시다!
2. 이재훈 목사(한국로잔위원회 위원장, 공동대회장)와 함께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연합해서, 온 세상에 전하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요 14:6).

자고 일어나면 놀랍게 변해 있는 세상이다. 여전히 전쟁, 기아, 분열이 가득하다. 세상은 더욱 “절대적 진리는 없다”며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의 십자가로 죄가 가득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으며,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음을 말이다.

혼란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복음이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한국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순교했다. 그 이후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렸고, 하나님 은혜로 부흥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복음운동’ 중심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

2024년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복음주의 선교운동인 ‘로잔운동’이 일어난 지 50년 되는 해다. 세계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선도해 온 로잔운동이 개최하는 ‘제4차 로잔대회’가 2024년 한국에서 열린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세계 복음을 위한 운동을 통해서 그 은혜를 전하게 됐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다.

이 시대를 청년들에게 로잔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한국로잔위원회 위원장이자 제4차 로잔대회위원회 공동대회장인 이재훈 목사에게 들었다.

‘로잔운동’에 대해 처음 들어본 청년들이 많 습니다. 로잔운동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로잔운동은 1974년 시작된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세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정신이 자유주의 신학 등으로 잘못 흐르고, 많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또 1970년대 세계가 격동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독재, 빈곤, 가난, 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 등을 겪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복음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사회의 소음과 대조되고,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질 때는 분명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과 사회 변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온전한 복음이 전해질 때 언제나 건강한 사회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잔운동은 온전한 복음을 강조합니다. 로잔운동은 흔히 말하는 개인 구원의 복음과 사회

변혁의 복음을 구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복음만이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요, 우주적 구원이요, 온 세상의 구원이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강조합니다. 로잔운동은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온 세상에 전하자는 비전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로잔운동’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로잔운동의 영향력은 ‘복음’입니다. 로잔은 ‘복음만이 모든 세상의 어떠한 세계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진리이자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이며, 이 세상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확신을 가진 운동입니다. 세상에 치우친 이념적 운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흐름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을 향합니다. 특정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념에 치우친 운동이 아니기에 가장 복음적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로잔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1989년 2차 로잔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그 이후 ‘한국로잔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1세대 조종남 박사님을 비롯해 한철하 박사님, 조동진 박사님 등 선교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주도해서 한국로잔위원회를 결성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을 맡게 된 시점에서 4차 로잔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위원회 공동대회장을 겸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 복음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국제 대표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는 만큼 아시아 지도자들의 연합을 이끌어 아시아가 함께 섬기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온누리교회, 특히 청년들이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세계 복음주의 운동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1차 스위스 로잔, 2차 필리핀 마닐라, 3차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습니다. 4차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영아권 중심의 선교가 아시아권 중심으로, 북반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회가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서구 교회가 중심(majority)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가 중심이 됐고,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큰 대회를 유치하고 섬기는 교회가 이제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시점에서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연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4차 로잔대회를 계기로 한국 교회가 복음주의 운동을 위해 다시 연합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는 한국 복음주의 교회 중심에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마음으로 섬기는 촉매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누리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촉매제같이 자신이 녹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 귀한 일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미래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어 갈 주축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잔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해주시지요.

“로잔의 정신이란 내규처럼 정해진 것은 없고, 대회 때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잔은 운동(movement)이기에 누군가 중심이 되어서 규칙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사회의 문제들을 복음과 성경적 안에서 해결하고, 고민하는 운동이기에 대회마다 선언과 서약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로잔의 정신’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3차 로잔대회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HIS’ 인데, 겸손(Humility), 정직성(Integrity), 단순성(Simplicity)입니다. 이 세 가지가 로잔의 정신입니다. 담대하고 겸손(Humility)한 마음으로, 복음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직(Integrity)하게, 예수 그리스도(HIS)의 길을 따라 걷는 단순한(Simplicity)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정신(Spirit)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로잔운동 모임 가보면 모두 겸손한 태도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특징과 흐름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기에 그 물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호흡하기 때문에 지금 사는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그 시대 흐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흘러가는 조류가 정말 좋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는 존재이기에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를 절대화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청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방향하지 않으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출발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의 자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 글 허소원, 사진 문혁훈

*이 글은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제작한 <카운트다운 매거진>에서 전제했습니다.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젠더주의에 의한 미국학교의 정치화

미국에서 사춘기 차단 호르몬 및 반대 성 호르몬을 만드는 제약회사와 수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는 훼손을 가하는 이상한 의료 서비스는 그것을 원하는 고객 없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성전환 치료가 성공할 수 있고, 안전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전례 없는 이 사회적 실험에 대해 확신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학부모들은 젠더이념이 학교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제야 눈을 뜨고 있다. 젠더활동가들은 의사협회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실에서도 젠더이념을 의무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사노조를 통제해 왔다.

애비게일 슈라이어(Abigail Shrier)는 2019년 출판한 <회복 불가능한 훼손, Irreversible damage>이라는 책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사협회(CTA,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의 정책 회의에서 트랜스 정체성의 미성년 학생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기 위해 휴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을 결정했다고 고발했다. 슈라이어는 “미국의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별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고 배운다.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상관이 없으며, 성별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들을 ‘시스젠더(cisgender)’ 즉, 둘 다 같은 쪽이라고 부르고,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성과 성별을 서로 다른 쪽으로 인식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 조사에 의하면 ‘시스젠더’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성별 정체성의 다양한 뉘앙스를 앞에 두고 모든 아이가 자신은 성에 대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이 시스젠더라고 확신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거나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논리적인 소녀, 노래를 좋아하거나 연기를 좋아하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년은 모두 ‘젠더 비순응자’로 몰아간다고 현실을 고발한다.

사춘기와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형

나 성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학들도 젠더주의를 지지하는 교수들이나 운동가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대학 교수들은 이전의 학문과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학은 새로운 학문과 사상의 요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교육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대학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토론하고, 너무 과격한 문제

살아남았다. 그 과목을 개설한 교수들만 득세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인문학, 사회학 분야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정치적 올바름(PC), 젠더인권, 동성애 인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수업 시작 전에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고, 어떤 대명사로 불리기를 원하는지 말하는 시간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스스로 검열하도록 훈련하고 있어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완전히 젠더이념에 세뇌된 사람을 만드는 게 대학 교육의 목표가 되었다.

우리나라 대학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젠더운동가들이 장악한 선진국과 유엔, 진보 정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의 인권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들이 각 지자체와 교육기관에서 제정되었거나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젠더주의의 급속한 물결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젠더주의는 당사자들의 건강을 훼손시켜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 우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의 제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한다. 교육자들은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문화 속에 침입해 오는 젠더이념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잘못된 흐름에 대한 침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된 흐름에 대한 침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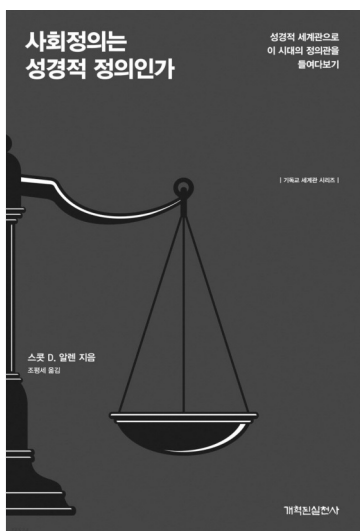
성해 가는 시기이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그것이 가능한가 능하지 않은 자신의 성별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돌아갈 수 없이 육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탈 전환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권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탈 전환을 한다고 해서 원래의 생식기능이

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이 작동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젠더운동가와 진보적 교수들의 주장이 반대 목소리를 완전히 억누르고, 교육내용이 급진적으로 돌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의 명문대학일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욱 급진적으로 진행됐다. 토론토 대학의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제는 대학이 더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젠더이념, PC주의, 편향된 인권을 세뇌하는 전당이 되었다”고 한탄한다.

특히 대학의 개설교과목에 전통적인 과목 대신 젠더주의의 색깔을 가진 과목만

기독교 세계관 관련 추천 도서

‘성경적 정의’를 배워라!



<사회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
스콧 D. 알렌 저 | 조영세 옮김 | 개혁신실천사 | 15,000원

‘정의(justice)’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간은 정의를 매우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긴다. 추구할 만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성경에서도 ‘정의’는 중요한 가치다. 성경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신 32:4)라고 말씀한다. 정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정의를 알게 된다.

그런데 ‘정의’라는 이름을 화려한 포장지로 내세우고,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사회정의(social justice)’다. ‘사회정의’라는 단어가 웬지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사회정의’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교묘하게 포장된 거짓 진리임을 알 수 있다.

스콧 D. 알렌은 <사회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에서 사회정의의 진실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최근 들어 어떤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복음주의 교회의 중심부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그것을 ‘사회정의’라고 부르

는데, 다양성, 평등, 포용에 관한 책임이 결부되어 있다.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용어들의 성경적 의미는 물론이고, 서구 문화에서 아주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의미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고의든, 무심코든, 복음주의 교회가 ‘정의’와 같은 중요한 용어의 성경적 의미를 거짓 의미로 대체한다면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스콧 D. 알렌이 지적하고 경고하는 사회정의의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정의 이데올로기는 무신론적인데, 그 이데올로기에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진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진실은 속해 있는 ‘정체성 집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무런 고정된 기준이 없고, 집단과 문화를 뛰어넘는 공적으로 권위 있는 사실이나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관점과 해석만 난무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소위 억압자 집단에 소속되었는지에 근거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동과 행위에 근거해서 유무죄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스콧 D. 알렌이 <사회정의는 성경적 정의인가>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정의’라는 단어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정의’는 우리의 흠과 라운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사회 정의와 혼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명확함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더욱 위험한 혼동의 씨앗이다.”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죄악의 길로 이끄는 사회정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정의’를 배워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

“...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창 2:9)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면서도 절대로 이루지 못할 거라고 믿는 것 중 하나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이 생명나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노화 연구가 발전하면서 수명이 영원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포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세포가 분열되면서 DNA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복구시켜 주는 효소가 사람에게 있지만, 짧아진 텔로미어를 완전히 복구시켜주지 않는다. 만약 이 효소를 활성화해 텔로미어를 계속 긴 상태로 유지 시킨다면 세포 노화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 또 세포가 노화되는 것은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아서다. 세포 안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청소 시스템이 있음에도 완벽하지 않다. 만약 이 시스템이 노폐물을 온전히 제거한다면 노화가 일어나지 않

을 수 있다. 노화 연구에서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줄기세포다. 줄기세포는 다른 세포들처럼 노화되지 않고 새로운 세포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만약 줄기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면 몸은 계속 젊은 세포들로만 구성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물질들과 유전자 등을 개발해서 노화 현상과 관련된 세포 안의 효소나 청소 시스템, 줄기세포 등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약물 개발뿐 아니라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 연구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중해 식단이 노화된 뇌를 젊게 만들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노화와 죽음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노화 방지를 위해 개발한 연구 결과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예를 들어, 효소를 이용해서 텔로미어를 원래 길이로 되돌려주었더니 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만 것이다. 노화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현

상은 역전시킬 수 있지만, 노화 자체를 완전히 역전시킨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에덴동산의 생명나무는 지금까지 노화 연구를 통해 개발된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세포 노화를 역전시키는 특별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특별한 것은 생명나무에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이 있어서만 아니다. 생명나무가 진정 특별한 것은 에덴동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장소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40일 밤낮 교제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출 34:29).

진정한 생명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그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계 22:2).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땅에 왜

생명나무가 필요할까? 부활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아닌가? 부활의 몸은 현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과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부활의 몸도 생명나무와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다. 생명나무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이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7월 10일~16일
<사도행전> 9:10~11:18



위진다. 하나님이 야나니아에게 알려주신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야나니아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결과 가 어떠한지 묵상하자.

▶주님은 야나니아에게 사울이 더는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신다. 야나니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사울에게 가서 인수하자 그가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는다. 사울은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이에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며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조차 사울을 불신하자 바나바가 그를 변호하며 중재한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꾀

묵상포인트 1:

사울의 회심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야나니아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꺾고 말씀에 순종해 사울을 찾아간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 사울(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세워진다.

하니 제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낸다.

묵상포인트 2:

복음 전파의 첫 관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으면 구원하신다. 이방인 고넬료 가족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일이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자.

▶베드로는 루타에서 8년 동안 중풍을 앓던 에니아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를 살린다. 이 기적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말을 듣는다.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각종 짐승이 담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본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불결하다) 하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지시대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간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듣고,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깨닫는다. 설교 듣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묵상포인트 3: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는 일은 비난받을 일이었다. 유대주의가 강한 신자들의 비난에 베드로가 체면적 변론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뜻

을 전한다. 그러자 모든 형제가 변하기 시작한다. 베드로의 용기 있는 설득과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할례파 신자들에게 비난받는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성령의 지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일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행하신 구원을 이야기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로소 오해와 비난을 그치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음을 인정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야나니아는 박해자로 악명 높은 사울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고정관념을 꺾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다. 순종을 가로막는 나의 고정관념이 무엇인가? 내키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이익이나 위험을 어디까지 감수해 보았는가? 인습이나 관습을 넘어 성령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못할까야’라고 생각하며 전도를 꺼리는 대상이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최고 본질이자 기쁨으로 여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수원비전센터를 위해서!

수원에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수원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수원비전센터는 지난해 1월 개원했습니다.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주며 일요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잘 배워서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할 뿐만 아니라 참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수원비전센터는 법률 및 생활 상담, 의료 및 출산 지원, 비자 문제 해결 등도 도우며 이주민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 수원비전센터가 더 많은 이주민의 친구이자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현재 수원역 근처에는 여호와의증인과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비전센터가 이단의 활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게 하시고, 선교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 수원비전센터 자원봉사자 30여 명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수원비전센터를 섬기는 모든 자원봉사자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주민들에게 흘려보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박재두 장로(수원온누리교회, 수원비전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멘토가 멘티에게

주도권을 하나님께!

“직장생활 중인 청년인데 꿈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고, 저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을 찾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졸업 시기의 두 학생에게 “10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나요?”라고 질문했다. 남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여학생은 “언제나 앞에서 이끌어 가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대조적인 두 사람이 10여 년 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남학생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화롭기는커녕 울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살고 있었다. 여학생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삶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나는 어떤 유형인지 생각했다. 내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적당히 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 지금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게 문제다.

비전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 삶의 의미를 찾는 비전이라면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방향을 유지하려면 주도적이어야기에 비전은 주도권에 관한 문제다. 그렇다면 비전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할까? 비전이 너무 추상적이면 실행 과정에서 방향을 잃게 된다. 때로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비전을 구체화해 준다. 나는 올해 1천km 달리기 목표를 세웠다. 이제 겨우 목표의 35% 정도 달렸다. 30여 차례 달릴 때마다 숨이 차고 또 후회한다. 그럼에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건강도 생각하지만, 그보다 머리를 정리하고 우선순위와 방향을 정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매번 그만 달릴까 갈등하는 숨 가쁜 달리기는 사실 정돈의 시간이다. 누군가는 그 시간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에게도 달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때로는 힘겹지만 감사하며 지키는 아침 일과도 있다. 소속된 선교단체에서 드리는 ‘5분 피기도’다. 내가 맡은 첫 기도는 오늘의 중보 기도 시작을 알리는 출발 신호다. 분명 5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 갖

는 의미가 특별하다. 내 주변과 일상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미주와 남미, 아시아 곳곳을 넘나들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시는 온 세상을 마음에 담는다. 내 삶과 시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딸 아이와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내가 꽤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현관에 들어서는데, 어린 딸이 반겨주며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나섰다. 조그마한 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잡고는 안방으로 끄덕대며 걸어갔다. 사실 내가 허리를 불편하게 숙이고 가방을 두 손으로 받치고 쫓아갔다. 안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보는 딸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과 자신감이 묻어있었다.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딸이 아빠를 도와줘서 정말 기쁘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깨닫는 경험이었다. 내 평생을 다 바친다 해도 드러지는 것은 하나님께 먼지 같은 수준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아주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도,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이 부여하신다.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

신다. 이것이 비전을 세우는 첫걸음이다. 그런 면에서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분명 작은 존재지만 삶을 의미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비전의 방향과 주도권의 소유가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말씀하셨다. 보이는 결과의 크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재량에 속한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비전을 세우려면 그분이 허락하신 일상에 충실해야 한다.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작은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 내 주변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품은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비전을 찾게 하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실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늘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정원만 멘토
(하늘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 싸움할 때는 한 가지 주제로만

부부 싸움할 때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다뤄야 한다. 부부가 의견 차이로 마음이 상하고, 말다툼할 때가 있다. 암묵적으로 넘기면서 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부딪힌다. 한 번 마음이 상하고 충돌하면 그동안 쌓아둔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부부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부부 싸움할 때는 한 가지 주제로만 씨름한다’이다. 감정이 격해지고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마음이 든다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논쟁하는 게 어렵다. 억울하게 참았던 과거의 일까지 끌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갈등까지 현재로 끌고 오면 갈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힘들어도 현재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된 사건만 냉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문제는 냉정하게, 감정적인 흐름은 세밀하게 다루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남편들은 일주일 전 즈음 있었던 부부 사이의 소소하고 섬세한 일을 기억하지만, 아내는 15년 전일도 세세하게 기억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모든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마음에 더 담아 두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좋았던 기억들은 추운 겨울날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장작처럼 타오르게 한다. 그러나 좋지 않은 기억들은 부부

싸움할 때 언제든지 더욱 폭발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 그래서 부부는 현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평소 약속할 필요가 있다. 평소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소한 불씨가 큰불로 번지게 된다. 작은 불씨일 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도움이 된다. 싸움의 범위는 현재에 맞추고, 가능한 부부 범위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 범위가 부부와 가족을 벗어나 서로의 본가까지 확장하지

다. 배우자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 꺼내 현재 싸움 재료로 삼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난다.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에 배우자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 다시 공격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물론 과거의 힘들었던 경험들을 다시 꺼내 싸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사건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傍證)한다. 웬지 자신만 참아야 하는 것 같고, 상대는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해결 경험이 쌓이면 부부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간혹 어떤 부부는 자신들의 문제가 양가의 감정싸움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의 갈등과 싸움 그리고 화해는 충분히 부부가 통제하고 잘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범위를 벗어나 양가까지 확대된다면 부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 그래서 부부가 겪는 갈등 범위를 가능한 한정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단순한 규칙이 있음에도 종종 유혹을 받는다. 그 유혹은 과거에 쌓였던 상처와 어려움이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마음에 아직도 분노가 쌓여서 그 사건만 생각하면 배우자가 정말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부부 사이의 경험들은 부부 싸움을 할 때 표면으로 나타난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경험들이 남아있더라도 현재 부부 싸움에 그 사건을 가지고 오면 해결이나 봉합보다 더 심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가능하면 현재에 집중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면 극적 타협을 이룰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쌓아왔던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할 말이 있다. 한 편이 섬세한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나도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나도 당신에게 화가 난다”, “당신만 힘들었던 것 아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식의 격한 말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크다.

부부 싸움에 집중하면 비슷한 과거 사건들이 떠오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기억나고, 사과받지 못한 고통이 자연스럽게 생각나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부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문은 닫아두고 눈앞에 놓인 사건만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한 부부라면 긍정적인 한가지 해결 경험을 한 것이다. 긍정적인 해결 경험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미해결된 갈등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부부 싸움은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라는 규칙을 지키면 좋겠다.



황국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카우치워십 콘서트 ‘回中讚揚(회중찬양)’

7월 20일 목요일 오후 8시 서빙고 본당



카우치워십(Couch Worship) 단
독콘서트 ‘回中讚揚(회중찬양)’ 이
7월 20일(목) 오후 8시 서빙고온누

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다. 오후 7시부터 입장
할 수 있다. 콘서트 티
켓은 로아스토어 홈페이지(loaisloveoneano
ther.com)에서 예매하
면 된다. 가격은 1+1티
켓(총 2매) 2만 원, 1인
석(1매) 1만8천 원이다.
콘서트 외에도 특별
한 순서들을 준비되어
있다. 7월 20일(목)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과 한
동홀에서 ‘LOA 크리스천 페어’가
열린다. 두란노서원, TITHER, 토기

장이, KOUM 등 40여 개 기독교 브
랜드가 참여한다.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경
찬홀에서 선택특강이 이어진다. 달
빛마을(크리스천 유튜브), 민준호
대표(IJM KOREA 대표), 임영광 본
부장(CGN) 등이 강의한다.
카우치워십은 한동대학교 학생들
로 구성된 크리스천 콘텐츠 크리에
이터다. 음악, 미디어, 라이프스타일
등 성경에서 얻은 영감으로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고 있
다.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lov
eoneanother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우리들의 목적지는 하나!”

2023 간사연합수련회, 100여 명 참석

2023 간사연합수련회가 지난 7월
4일(화)과 5일(수) 강릉 Tops10(탑
스텐) 호텔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간사 100여 명이 참석
했다. 도착예배, 팀빌딩, 주제 토론,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노치형 목사(목회행정)는 ‘우리들
의 목적지는 하나’를 주제로 말씀
을 전했다. 노 목사는 “하나님의 나
라를 마음에 품고 같은 목적지를 향
해 나아가는 간사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함윤지 간사(디자인지원팀)는 “처

음 참여한 간사수련회였는데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간사님들과
하나님 안에서 동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변숙경 간사(러브소나타)는 “간사
님들과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이야
기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됐다”면서 “더욱 화
합하고 함께 나아가는 간사공동체
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
혔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7월 화요성령집회 ‘Countdown’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7월 화요성령집회 주
제는 ‘Countdown’이다. 매주 화요
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
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
여할 수 있다.

7월 화요성령집회 ‘Countdown’

에서는 11일 최성민 목사 ‘선교, 열
방을 향한 부르심’ (행 20:17~24), 18
일 최성민 목사 ‘부흥, 하나님의 열
정’ (사 9:1~7), 24일 최대홍 목사 ‘
회복, 이 땅을 고치소서’ (스 8:1~8)
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7월 29일~8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69기 참
가자를 모집한다.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온
라인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가
정에서 바로 서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프로그

램이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
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
지의 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
어진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아버지
학교 홈페이지(father.or.kr)나 아이
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10-2657-1875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기!

‘청춘클래스’ 5기 참가자 모집

크리스천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
서 연애하는 방법을 배우는 ‘청춘
클래스’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
월 23일까지 네이버카페 ‘온누리교
회 청춘클래스’ (cafe.naver.com/on
nurichungcle)에서 신청하면 된다.
크리스천 미혼 싱글 청년(35세 이
상)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9만 원(식식 제공)이다. 청춘
클래스 5기는 8월 19일(토)과 26일
(토) 2주 동안 여의도이룸에서 진행
된다.

청춘클래스는 온누리교회에서 주

최하는 크리스천 청년 연애·결혼
코칭 세미나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유익한 강의와
또래 청년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
루어지는 축복의 장이다.

신현지 자매(청춘클래스 4기)는 “
청춘클래스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을 왜 축복하시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그 기준을 배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문의: 네이버카페 ‘온누리교회 청
춘클래스’

두란노어머니학교 7월 P.P 기도회

17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선교관 201호

두란노어머니학교 7월 P.P(Power
Prayer) 기도회가 열린다. 7월 17일
(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01호에
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유
튜브 채널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P.P 기도회는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열린
다. 8월 P.P 기도회는 쉰다.

문의: 02-2182-9110

‘Come with Me, 함께 가자!’

한동대학교 여름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한동대학교 여름 영어캠프 참가
자를 모집한다.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Come
with Me, 함께 가자!’를 주제로 진
행된다.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원어민 교사와 재학생이 영어를
가르쳐주고, 신앙을 나눈다.

참가신청은 7월 14일까지 한동
대학교 영어캠프 홈페이지(camp
.handongedu)에서 하면 된다. 참
가대상은 초등 3학년부터 중등 3
학년까지다. 80명 선착순 모집한
다. 회비는 350만 원.
문의: 054-260-3045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

2023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캠프

2023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캠프가
막 올랐다.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
의 친구’를 주제로 예수님의꿈아이
(이하 예꿈)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꿈이자라는땅(이하 꿈땅)과 파워웨
이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된
다.

예꿈에서는 적용놀이와 체험활동,

꿈땅에서는 성경 퀴즈와 카드놀이
등을 한다.

파워웨이브 여름캠프는 ‘익투스’
를 주제로 진행된다. 파워웨이브 여
름캠프는 미리내 내셔널, 여주 중앙
청소녀수련원, 동흥천교회 등에서
개최된다.

/ 김다애 기자

말씀과 역사 현장 탐사!

‘열린다성경 스테디투어
스페인 편’ 참가자 모집

성경에 나오는 장소와 교회 역사
적으로 중요한 현장을 탐사하며 공
부하는 ‘열린다성경 스테디투어 스
페인 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
일(목)부터 11일(토)까지 스페인에
서 진행된다.

이번 열린다성경 스테디투어는 ‘
종교개혁사 투어’다. 매일 아침 1시
간 30분씩 ‘예수회’, ‘종교재판소’,
‘반종교개혁’, ‘유대교 르네상스’를
주제로 교회사를 배우고, ‘신대륙
발견’, ‘스페인제국 역사’, ‘코르도
바&그라나다 이슬람 역사’, ‘서양
건축&미술사’를 주제로 세계사 공
부도 한다. 종교개혁사 투어는 이탈
리아편, 스위스편, 독일편이 있다.

문의: 010-4902-1022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 서빙고

문의: 권역별 기도팀

아제르바이잔(아사모)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꿈터
문의: 010-9976-3100

샬롬 이스라엘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시온홀
문의: 010-2930-2322

인도선교사 기도모임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2735-3807

인도 기도모임
격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4516-4710

몽골(아웅) 기도모임
온라인: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대면: 매달 1회 오후 7시 30분
문의: 010-9417-0759

파키스탄 기도모임
매달 둘째, 넷째주 토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3212-6902

방글라데시 기도모임
매달 셋째 주일 오후 4시
문의: 010-5071-0144

아랍과 페르시아 기도모임
분기별 1회 주일 오후 4시
선교관 202호
문의: 010-3259-3561

일본 기도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산관 302호
문의: 010-9349-5631

- 양재

소아시아(튀르키예) 기도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문의: 010-5225-5522

다문화 차세대선교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JDS홀
문의: 010-6422-8376

터사모(튀르키예)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Acts29홀

베트남 기도모임
매달 1회 온라인
문의: 010-2944-8123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아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승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엘바인 박신용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옥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저지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법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8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ainsaibasi Chuuko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374) AICHI-KEN NAGOYA-CITY NAKAGAWA-KU SHIMAI-CHO61 EHW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홍길 김재석 김대승 김정희 김승수
이준호 이기복 신동식 이준호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환
김동식 김재석 김도균 김미정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환 김병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대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웅 김대남 김한규 김현실
김흥주 노규석 노치형 노혜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배 박성은A
박성업 박성진 박준국 박형준
배철남 박성우 박진규 박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스티브차
안부영 양성민 양재정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성환 정성진 정승철 정찬호
정현석 정현권 정희성 제지훈
조동욱 조병훈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명민 최용준 최재원 최충현
최혁중 추대식 최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철 김용삼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종영 김대주 김혜경
네트라 뉴아일랜드 마푸바루
박씨마 백승현 비 킬 서영철
성파레비 사가르 윌리엄 에릭 마
이틀 스톨츠 이강혁 이민영
에아프루 이은일 이은정 이진아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제인랑
존페터 차에미 최정현 허효경
황연선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박대성 박배남 김기아 김도배
권대식 권예람 김가희 김다모
김동규 김미리 김민수 김박식A
김반석B 김원진 김예찬 김의연
김종규 김정부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정 남 해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환 박재미 박예슬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미려 박예린
배명지 박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신기환 신새벽 신우용
신성섭 안류택 양한도 영경희
오국현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유석부 유용연 유혜진
이나라 이도열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시라라 나리코
이요한 이진수 이정민 이정민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병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수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성원 정성민
정은영 정영연 정희에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은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우영
최규준 최진태 최병훈 최은영
최혜정 한태호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기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환 권철준
김경선 김정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남열 김석인 김성수 김성웅 김용성 김원준 김원중 김중건 김준근 김진국 김하준 노재한 문찬규 문봉남 박상송 박성복 박성근 박성호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대성 박대문 박배남 박성웅 박호준 박용기 상병선 서성철 서진봉 서찬교 서성환 서민석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윤식 송일섭 송재길 송창호 신만인 신성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국 심창주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광범 양원우 양병준 윤기용 윤성열 유근준 윤영성 윤영오 윤현태 윤형주 이강빈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성기 이상희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요하 이우근 이요대 이장호 이재정 이재준 이재호 이종수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호 이희영 이희주 장 광자 장영희 장영준 전구영 전정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규 정보원 정승훈 정영열 정희태 정재탁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승업 조희태 정진하 정주일 정우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부 최도성 최창근 최 병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장수 최종길 최희영 권무규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식 호종일 홍기우 홍대표 홍병식 홍충일

홍정표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사무장로

강경규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인택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강진택 강